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시대 노동신학의 필요성 연구

이봉석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소명이론
- III. 지식·정보사회로서 후기 산업사회 시스템 속에서 노동의 성격
- IV. 노동윤리에 대한 소명 위기의 신학적 판단
- 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34.03>

• ABSTRACT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ology of Work’
in The Neoliberalism and The Technology

Lee, Bong-Seok(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concept of calling and vocation as it argues that a new meaning of ‘work not as a means to increase one’s gains, but as an action that contributes to benefit of all,’ is the string of hope in reviving this fragmented society. Based on this argument, This paper, by retrieving Luther’s Theory of Vocation, aims to discuss the reality that the Korean Church has overlooked the benefit of all at the expense of their focus of earning wealth. With this sense, the theory of work, claimed by Luther and religious reformers, will be reexamined. This research also will address the necessity of distancing from flexibility of work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ology of work. Besides, this paper will not only explore how Protestant ethics partook in the temptation of praise and support of capitalist economy through Weber and Michael Novak, but it also examine how descriptive science and the Internet might lead to discoloration of sound capitalistic spirit and employment instability. Then, this paper will suggest an innovative connection between Christian faith and work in terms of the re-interpretation of old Theory of Vocation and asceticism. These thoughts originated from Jacques Ellul and Hans Jonas’ criticism of civilization of technology on modern understanding of work based on descriptive science.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old Theory of Vocation and asceticism needs to be the core of Theology of Work.

Key words: Flexibility of Work, Theology of Work, Business as a calling, Labor as a mean.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한국사회 안에서 노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에 있음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 안에는 삶의 경험이 층층이 쌓여 있어 이를 전수하는 사람과 전수받는 사람 사이에 밀착관계가 있었다.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써 일과 삶 자체 사이에 분리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천직’이라는 말도 가능하며, 하늘이 맡겨준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그 사람을 대변할 만큼 삶의 전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동 자체가 철저히 소비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전 세대에 걸친 실업률 증가는 노동의 소비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예이다. 또 다른 노동의 소비적 형태는 숙련된 노동자의 노동이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삶의 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불안에 대한 문제이며 신학적 윤리의 주제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윤리와 실존의 문제로 가시화되기까지 개신교 문화적 토양 안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과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 연합 가능한 것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루터의 ‘소명이론’이 후기 산업화 시대에 실효성이 있는지 밝힐 필요도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제가 협소한 노동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종교개혁을 연상해야 할 정도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충돌과 갈등의 모습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고착화, 출생에 따른 부의 대물림, 무너진 기회 균등, 갑을관계 등 실존의 문제를 직접 건드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에 신학에 솔직하여 기독교 복음에 따른 노동이해를 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첫 번째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소명에 근거한 ‘노동신학’을 다시 조명할 것이다. 이렇게 루터와 칼뱅의 노동 윤리를 재검토함으로써 개신교 노동개념이 자본주의 정신을 지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두 번째로 후기 산업사회 시대에 사람들이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과학에 거는 기대가 결국 노동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논자는 노동과 관련하여 기술과학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전복하면서 현대 기술과학 사회가 전혀 기독교적 가치와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번째로 19세기 베버 이후 오늘날까지 기독교 노동윤리 영역에서 수용하였던 ‘자본주의 정신의 도덕적 건강성’과 ‘개신교인들의 금욕주의적 태도’ 사이에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음 보여줄 것이며, 종교개혁가들의 주장, 즉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노동신학 안에서 다시 복원할 것을 시도하려 한다.

II. 소명이론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가톨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캐슬 교회 정문에 붙였다. 이 일이 있고 개혁의 혼동과 충돌이 서구 유럽을 강타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기존 질서를 고수하려는 가톨릭 집단과 이를 개혁하려는 종교개혁가 집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정치, 법률, 경제, 가족, 혼인 등 사회의 상부구조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었다. 종교개혁의 일반적인 이해에 의하면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와 성직자의 문제에서 가톨릭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이들은 면벌부의 효능, 전통의 권위, 교황의 지위, 구원에 있

어서 선행이 점하는 비중 그리고 성직자들의 혼인권 등에 관해 논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점은 개혁의 요청부분이 일상에까지 미쳤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개혁의 원래 의제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경제적 쟁점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쟁점 중 하나가 교회와 수도원에 기부된 재산의 즉각적인 재분배와 수도사의 노동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던 이는 프로테스탄트의 도시 알텐부르크(Altenburg)의 루터파 개혁가 벤체스라우스 링크(Wenzeslaus Linck)였다.¹⁾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루터와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511년 비텐브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를 받은 이후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520년 그는 스타우피츠(Staupitz, 루터의 고해신부)의 뒤를 이어 독일의 지방 아우구스틴(Augustin)의 주교 대리 법무관을 지냈다. 1522년에 알텐부르크 시민들은 루터에게 독어 설교자를 부탁했었고, 루터는 그의 친구 링크를 새로운 지도자로 뿐만 아니라 개혁의 동지로 인정한바 있어, 그의 신뢰자인 링크를 알텐부르크 설교자로 보냈다.²⁾ 링크의 설교는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루터 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루터의 95개 조항은 그 덕분에 더 폭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1524년 링크는 널리 읽혀진 팸플릿에서 경야 연도, 교회당, 미사, 오르간, 종 등의 헌납을 통해 스스로를 기념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그는 가톨릭교회가 강요하는 기부나 헌납이 성직자의 부당이익을 부추긴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을 유언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³⁾ 그는 교회 재산의 법적 지위를 재

1) https://de.wikipedia.org/wiki/Wenzeslaus_Linck

[http://gameo.org/index.php?title=Linck,_Wenzeslaus_\(1483-1547\)](http://gameo.org/index.php?title=Linck,_Wenzeslaus_(1483-1547))

2)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90. 루터가 자신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링크에게 편지로 알린 것으로 보아 이들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규정하려는 의도로 글을 쓴 것이다. 그의 반 수도원 생활에 대한 공격은 법 설립의 요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회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기 1년 전 1523년 출간된 팸플릿 「노동과 구걸에 관하여: 나태함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법」에서 링크는 이미 수도원 수사의 무노동을 ‘악마적 동기’에 비유하며 과격하게 공격했었다.

“(성직자는)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된 모든 부담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초법적인 삶을 살고자 하고 ...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만 하는 일상적인 노동과 징벌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자들이었다”⁴⁾

링크에 의하면 일하지 않는 것은 곧 악마의 유혹이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타락한 상황 하에서는 근면한 노동이 신의 특별한 치유책이다’라는 독특한 ‘노동신학’을 제시하였다. 달리 말해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불가피한 고통이며 참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인간에게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주신다. 반대로 모든 노동과 수고로부터 면제된 삶은 악마가 주는 유혹이다.⁵⁾ 자신의 ‘노동신학’ 개념으로부터 링크는 직업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걸인과 도와줄 가치가 있는 지역 빈민을 세밀하게 구별하였다. 즉 명백한 노동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자들만을 선별해서 도움을 주도록 가르친 것이다.

링크에게 영향을 준 루터는 1521년 「수도원의 맹세에 관하여」라는 팸플릿에서 처음으로 소명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는 인간의 노동을 이 땅

3) S. Ozment,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박은구 역,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서울: 혜안, 2004), 139.

4) 위의 책, 143.

5) 위의 책, 141.

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얻을 일시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중세 가톨릭적 생각에 반대하였다. 그에게 노동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이다. 따라서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이 된다.⁶⁾ 루터가 일의 목적을 생계 문제의 해결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돌보심으로 본 것이다. 특히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직업 소명관을 설명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잠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지 않는 수도사들을 질책한다. 또한 그가 소명을 언급할 때 고리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구절을 언급한바 있다.⁷⁾ 즉 각자 자신의 일을 다 하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예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보수를 주신다고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두수선공은 구두를 잘 수선함으로써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다.⁸⁾

루터와 링크의 일에 대한 이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과 구원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제네바의 칼뱅(Jean Calvin)은 루터의 소명이론에 동의 하였다. 그 역시 하나님은 인간이 발전시킬 수 있

6) Artheur Rich, *Ethique economique*, (Geneve: Labor et fides, 1994), 271.

가톨릭 노동 신학 역시 변화되었다. 1891년에 교황 레오 13세 회칙, *Rerum Novarum*을 필두로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의 *Laborem Exercens*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에서 노동이 이중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첫째로, 노동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필수이다. 두 번째로,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한다. 노동 안에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톨릭의 입장의 변화는 개신교의 노동관과 유사하다.

7)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Day by Day We Magnify Thee*, 주인해 역, 『그리스도인의 자유/루터 생명의 말』 (서울: 동서문화사, 2010), 465.

8) 손준영, 『직업윤리』 (서울: 대왕사, 1998), 129.

는 일의 힘을 사용하여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신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포착된 문제는 죄이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칼뱅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분명치 않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예정론으로 설명하였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따라서 인생의 전 과정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여기서 금욕적 생활자세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금욕적 생활태도를 유지한다 해도 죄로 인해 노동은 왜곡된다. 다시 진정한 노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양자가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칼뱅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간의 삶의 목표로 설정한다. 이것이 칼뱅의 노동이해이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하는 인간은 근면과 절약 그리고 섬김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른바 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 값비싼 옷을 입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욕망의 충족은 하나님의 일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칼뱅의 노동 이해 안에서 소명과 금욕이 구원의 증표로 외연화 된다. 앙드레 비엘러(André Biéler)는 칼뱅의 윤리적 입장을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른 자가 빵을 먹은 것을 저주하신다”라는 그의 말을 통하여 강조하였다.⁹⁾

종교개혁가들이 인식한 노동은 계급의 서열이 있고 각 계급의 역할이 정해진 중세사회 질서를 뒤엎는 혼란으로 이끌었다. 더욱이 인간의 근면한 생산 활동을 윤리적으로 고무시키는 칼뱅의 금욕주의는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더욱 굳건하게 사람들에게 노동윤리로 받아들여졌다. 막스 베버(Max Weber)를 유명하게 만든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 베버에 따르면, 금욕과 근면은

9)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81.

구원의 결과인 동시에 구원받음을 재확인해주는 객관적 표지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일어난다. 과연 가톨릭교회 전통에서 수사들의 나태함을 용인하였는가? 신원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의하면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540-604)가 7대죄 목록을 정하면서 교회에 적용하였다. 본래 7가지 대죄는 이집트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345-399)가 정한 수도사들이 벗어나기 힘든 여덟 가지 죄의 목록을 차용한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4세기 수도원에 있던 치명적 죄의 목록을 교회로 가져온 것이다.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내용을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대죄를 신자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로 만들었다.¹⁰⁾ 이 7가지 대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이다. 신원하에 따르면 나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대죄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즉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로서 이기적 나태이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¹¹⁾ 그는 나태를 세이어즈의 정의를 빌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 있는 죄다.”¹²⁾

신원하는 나태 안에 ‘미루는 성향’과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길은 소명의식,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목표의식을 되찾는 길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지

10)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서울: IVP, 2012), 15-16.

11) 위의 책, 113.

12) 위의 책, 112.

적은 종교개혁가들의 ‘노동신학’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톨릭교회가 게으름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 교회의 시대에 게으름을 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와 교회의 성직자들이 게으르다고 비난을 받았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일을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적 혹은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수도사와 가톨릭교회 성직자는 일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혹은 섬김의 행위로 보았어야 했고 이를 기독교인에게 교육하였어야 했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을 행하지 못한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일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과정을 거쳤다. 1891년 가톨릭 교회 문헌인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은 ‘레룸 노바룸’(노동자의 상태에 대하여)은 세계 현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40년이 지나 1931년 교황 비오 11세는 회칙 ‘파드라제시모 안노’(사회질서의 재건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진전된 ‘레룸 노바룸’의 적용을 보완 설명하였다. 1961년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는 현대적 의미의 ‘레룸 노바룸’을 적용하였다.¹³⁾ 요한 23세의 교회 회칙에 의하면 노동은 두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돈과 쾌락과 권력을 약속하며 지나친 이기주의나 혹은 반항으로 유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킨다. 특히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아, ‘노동은 지상에서 초자연적 세계를 건설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은 노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¹⁴⁾ 오늘날 가톨릭교회가 보여주는 노동의 이해는 종교개혁가들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절대 다수에 있어서 노동은, 인간이 생활 방도를 마련해내는 유일한 근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는 기계적으로 도는 시장의 힘에 일임해

13) 『사회정의의 가톨릭의 입장』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3), 5.

14) 위의 책, 244.

줄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반대로 그것은 정의와 공평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¹⁵⁾

종합한다면, 가톨릭의 노동 인식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종교개혁가의 노동에 대한 본래적 인식은 자본주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노동 신학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줄 곧 지지하여 왔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다. 작고 엘뤼(Jacques Ellul)의 말처럼 18세기 베버의 생각에 따라 일반 노동 이념을 찬양하려는 유혹에 가담하였던 것이 프로테스탄트이었다.¹⁶⁾ 즉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일’속에 ‘하나님을 위한 일’ 개념을 덧입혀 노동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노동을 삶 혹은 생명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루터나 칼뱅이 공들여 이론화한 본래적 소명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I. 지식·정보사회로서 후기 산업사회 시스템 속에서 노동의 성격

자본주의 정신과 기독교 윤리의 유사성을 사회학적으로 관찰하고 이 두 이념의 혼합을 시도한 이가 막스 베버(Max Weber)이다. 그에 따르면 저마다 돈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신의 삶에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여야 돈이 축적되는 것이다. 근면, 검소, 저축, 절약, 시간엄수 모두가 돈을 벌기위한 윤리적 규범들이다. 즉 자본주

15) 위의 책, 245.

16) Jacques Ellul, *Les Combats de La Liberté*, 박건택 역, 『자유와 투쟁』 (서울: 솔로몬, 2008), 508.

의 정신이며 시민적 인생관이다. 동시에 금욕적 태도와 진지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종교적 사명(Aufgabe)이기도 한다.

문제는 베버가 루터의 소명이론이 아니라 칼뱅의 예정설을 자신의 주된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다. 이른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만 아시기에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 속에 살게 된다. 불안한 존재로서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베버가 루터보다 칼뱅을 선호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사실,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제도와 의식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는 ‘참 인간(의인)이 개인의 사적 종교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나는 선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죄된 인간이 어느 누구 혹은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의롭게 되어야 한다. 죄인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하기에 자기부정을 한 루터의 인간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 불안하다.

반면 칼뱅의 금욕주의는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자기부정과 자기 훈련을 강조하였다. 루터에게 없던 자기 훈련이 칼뱅의 신학 안에 있었다. 이러한 윤리적 강조는 결국 향락보다 절약과 저축을 중요하게 가르치게 되어 부를 축적하는 토대가 되었다.¹⁷⁾ 칼뱅이 루터의 ‘불안한 인간 존재’에게 ‘참 인간(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베버가 칼뱅주의의 금욕적 윤리를 19세기 자본주의를 설명하는데 선택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융접하면서 소명이론은 중세 이전으로 퇴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부의 획득 자체가 목적이 되어 일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

17) Richard Sennet, *The Corrosion of Character*,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서울: 문예출판사, 2002), 150.

에 대한 심금이 사라진 것이다.¹⁸⁾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의 ‘노동신학’에 반대이다. 일 차제를 하나의 생존의 수단으로 보는 가톨릭의 일차원적 접근이 재발한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듯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며 인간은 일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일이 부의 확장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칼뱅과 루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 개념이 들어갈 틈이 사라졌다. 이것은 베버가 개신교의 노동개념에 왜곡을 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왜곡된 노동 개념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 곳곳으로 퍼져 보편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베버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중요한 소비 요소를 분석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사회이다. 저축보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이고 소비가 촉진 되어야 산업도 활기를 띠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사회이다. 자본주의가 생산과 소비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베버는 생산과 소비 두 요소를 같은 무게로 연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소비를 누락했다. 금욕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의 유사성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일까? 아무튼 소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개신교 윤리에 관하여 절반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버의 시대보다 더 진보한 자본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18) 문시형, 『직업 소명과 책임윤리』(서울: 한울출판사, 1999), 114. 문시형은 앙드레 비엘러의 주장을 취하여 베버의 칼뱅주의 왜곡을 지적한다. 즉 부와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칼뱅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노동 윤리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문시형은 종교개혁자들의 직업 소명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베버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의 소명이론 문제

1930-40년대 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세운 하이에크(Frederic von Hayek)나 1970년 이후 하이에크의 이론을 지지했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eman),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과 같은 영·미계열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사회주의 확산을 경계하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학자 마이클 노박은 ‘소명으로서의 기업’개념을 만들어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기업, 절대 보전적 사유재산권, 개인적 특권,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소명이 똑같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요소로 소명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자신의 요구 때문에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다.¹⁹⁾

노박이 제시한 예로써, 펨플튼 그로우스 펀드의 창립자 존 템플튼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했으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미국의 최대의 투자신탁회사인 피데리티티 투자회사의 존슨(Edward Crosby Johnson II)은 법률 계통의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으나 곧 그의 소명이 투자라는 것을 알았다.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회사 휴스턴 엔론(Enron Corp)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레이(Kenneth Lay)의 경우 자신이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바 있다.²⁰⁾ 노박은 이 외에도 다수의 기업

19) Michael Novak, *Business as a Calling*, 김진현 역, 『소명으로서의 기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32.

20) 위의 책, 33-50.

책임자를 열거하며 모두가 자신의 소명(정체성)을 발견한 이들이며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소명에 대한 이해는 올바르지 않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노동자가 존재하며 일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을 발견할 길이 없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사의 도산에서 시작된 미국발 부동산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2010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의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 재정위기는 경제공황의 공포를 만들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경제문제로 끝나지 않고 기업윤리의 부재라는 사회적 담론을 낳았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무(無)윤리성과 책임 없는 행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남은 생을 유지시켜줄 연금을 다 잃어버려 삶을 파괴당하였다. 그러면 두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보여준 무(無)윤리적 행위는 무엇인가? 사건의 책임자들이 만들어낸 파괴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결과라 할 수 있을까? 만약 노박이 열거한 대기업 대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든 셈이 된다. 물론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가 속한 기업이 망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소명이론은 무 윤리적인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했다. 소명이론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만물을 키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즉 사회윤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최소한 노박이 말하던 회장들은 어쩌면 소명을 가진 이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은 개신교적 윤리와 상관없이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제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자본주의 분석은 소명과 관계없는 기업의 활동을 말하는

데 의미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정치나 기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위계구조가 붕괴되어 사라져가고 있다. 규칙과 규제, 강제 등의 수단에 힘입어 조직사회 내의 구석구석까지 통제 해온 대규모의 경직된 위계구조는 개인의 정보접근권을 허용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따라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²¹⁾

IT기술발전으로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기업 대표자나 창업자가 가졌던 전통적 윤리나 이에 근거한 윤리적 결정이 기업 안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후쿠야마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식·정보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는다. 여기에 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만 존재할 뿐이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지식과 정보는 단기성 투기 자금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18세기 자본이 생산에 기여함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논리는 유물 수준의 이론이 되었다. 이처럼 투자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돈의 흐름은 기업의 대표나 창업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후쿠야마의 시각에서 볼 때, 조직 내 각 개인의 역량에 달린 ‘지식과 감정’이 조직 리더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 판단만큼 커지면서 조직은 윤리와 상관없이 유지되며 관리된다. 그러나 ‘소명으로서 기업’은 이상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후쿠야마는 기술혁신으로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며 문화를 자본으로 주장한다. 문화자본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자본주의 독주 시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왜 경제학자 후쿠야마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 이후 신질

21) Francis Fukuyama,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한국경제신문국제부 역, 『대붕괴 신질서』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1), 20.

서로서 도덕을 말하는가? 대답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노동자의 삶과 기업 사이에 도덕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일꾼과 고용인 사이에 서로의 삶을 보장하는 도덕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극도의 개인주의 문제를 풀기위해 사회적 자본, 즉 협동을 전제로 한 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적 가치기준이나 규범의 집합을 제안한 것이다.²²⁾ 신자유주의의 설립자 하이에크에 따르면 모든 재화의 분배와 정치적 판단은 사심이 없는 객관적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시장이 도덕을 대신하여 공의롭고 효율적으로 자원과 서비스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원리가 모두에게 정당하게 배분해 준다는 것이다. 이 전지전능한 시장 원리 배분 시스템이 교리로 적용되면서, 도덕이나 종교는 경제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적 이념들이 오늘날 초래한 결과가 무(無)도덕적 상황, 사회적 책임이 없는 기업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쿠야마의 도덕에 대한 재고는 타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이에크와 후쿠야마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노박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집단의 '정신'을 따르는 소명으로서의 그런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안에 없다. 베버의 주장처럼 종교적 금욕주의와 유사한 자본주의 '정신'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²³⁾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시 내의 공장 공동화 현상을 보자. 역사적

22) 위의 책, 36.

23) Lewis W. Spitz, 앞의 책, 450-453. "타우니는 또한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이라는 저서에서 베버의 이론에 찬동하면서도 자기 주장의 폭을 한걸음 더 넓혀 모든 프로테스탄트주의와 함께 그 주요했던 격동기의 사회 경제학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들을 그 속에 포함시키었다. ... 자본주의가 종교개혁보다도 수세기 앞서 출현한 것은 분명하다. ... 종교개혁가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무제한한 자본주의를 반대하였다. ... 칼빈주의가 주로 파고든 것은 소시민, 서민층의 소상인, 장인 공인들인 것을 생각한다면 17세기의 칼빈주의를 유난히 우리의 눈을 끄는 일부 부유한 금융가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실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으로 볼 때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은 도시에 집중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임금 노동자들이 있어 생산자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었고 공장은 도시 구성의 핵심을 차지했다. 그러나 오늘날 공장이 있던 자리에 대규모 쇼핑센터나 레스토랑, 은행과 금융기관, 서비스기관 그리고 대학과 병원 등의 정보이용 기관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도시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 공동체의 네트워크 집합체, 즉 ‘지식과 감정’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철강과 자동차 등 제조 공장은 도심 외곽 지역이나 임금이 싼 국가로의 이전하였다. 공장을 따라 이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짧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되었다. 결국 도시에서 공장이 사라지는 현상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이들과 불안정한 임금 계약자들을 양산하였다. 도시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 개신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소명’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동자들은 짧은 계약 기간과 적은 임금의 일을 진정한 자신의 천직으로 여지지 않는다. 그저 생계나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일을 도구나 방편으로 보는 결과는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을 법률적으로 지지하는 제도가 삶의 세계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성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단기적 이익의 보장과 서비스업 구조에 부응하기 위해 리엔지니어링된 결과이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성’ 안에는 가치와 관계없는 수학적 논리(logik)가 들어 있다. 또한 한편 기술로서의 ‘노동의 유연성’은 효율성이라는 자체의 논리(logik)를 따르는 기술적 사고의 결과이다. 사고의 덩어리로서 과학기술은 각 개인이나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에 상관없이 자본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의 유연성’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비조직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은 뒤로한 채 유연성이 경제를 살리는 마법 지팡이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유연성의 역기능이다. 즉 기업에 있어 이윤을 남기는 부문을 매각하기도 하며, 이전에 제거했던 부문이 다시 재조직되기도 한다. 조직 자체가 유연성 때문에 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²⁴⁾ 유연성이 실직이란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본 논문이 고찰하고자 하는 소명의 개념(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히 ‘인간의 일’은 유익이고 필연일 뿐이다.²⁵⁾

2. 평면의 세계

위에서 소명으로서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평면의 세계에서 기술과학의 발전이 소명이론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자.

베버 당시보다 진화된 자본주의를 말함에 있어, ‘사물(인공물과 자연물 포함)에 가치가 있다’는 전통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오늘날 부정되고 있다. 기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사물의 가치를 물건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결과를 따라서 정하였다고 지적하

24) Richard Sennet, 앞의 책, 65.

25) 강원돈, “서양 실천철학의 노동 개념에 대한 기독교 노동윤리의 평가”, 『신학연구』 제 47집 (2005), 156. 한나 아렌트의 노동의 이해에서도 노동은 정치와 제작으로부터 구분되어 그저 생활과정의 필연성에 묶여 있다,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국한된 노동,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의 자유를 위해 노예들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해이다. 노동의 이해가 이와 같다면, 노동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사라지고 만다. 강원돈 교수는 한나 아렌트의 노동의 이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에 따르는 아렌트는 이 모범을 다소 수정해서 노동, 기술, 의사소통을 서로 구별하지만, 그녀의 이론은 이 셋을 올바르게 결합시키는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정치 행위는 언어와 행위를 통해 계시되는 중간 공간에서 전개되지만, 그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중간 공간은 노동과 기술을 증발시킨 다음에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에 대한 수단의 효율적 조직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절차가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이 본질적으로 의사소통과 무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였다.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한 사물과 서비스는 희소성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된다. 아담 스미스의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해는 ‘사후 가치’로서 팔리지 않은 물건의 가치를 설명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사물과 노동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평가라 할 수 없다. 맑스의 ‘목숨을 건 도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본가의 실패가 ‘그를 무산가로 만든다.’는 지위 상실의 표현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건 도약’의 표현 속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이 분석하지 못한 매매 이전의 혹은 매매되지 못한 사물에 대한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노동이 투여된 모든 사물의 ‘사전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사전 가치’를 인정해야 ‘사후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을 막을 수 있다.²⁶⁾ 이것이 맑스의 생각이다. 기라타니 고진은 맑스가 말하는 ‘사전 가치’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다. 어쩌면 노동이 얼 만큼 투여되었는가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노동가치설이 본 연구가 구상하는 ‘사람을 살리는’ 소명이론에 적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인은 맑스의 노동 분석의 시기를 지났다. 후기 산업화시대 토지, 노동, 자본보다 지식과 기술과학을 더 중요한 가치창출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스크린 시대의 도래로 인해 자본주의는 새로운 생산요소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이다. 예외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 화면을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이제 현대인은 전파를 매개로 물건을 구매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또한 많은 지식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얻기도 한다. 노동 역시 인터넷에서 종속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달리 말해 공간과 시간의 압축현상과 노동의 유연성은 분리될 수 없다.

26) 柄谷行人, 『トランスクリティケーターとマルクス』,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과주: 한길사, 2005), 322.

예를 들어 인도에 있는 콜 서비스 센터는 미국의 휴렛 팩커드 회사의 고객지원 서비스 일을 대신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미국의 휴렛 팩커드 회사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인도 벵갈루이다. 미국인을 위한 서비스에서 인도의 벵갈루 시에 실리콘밸리가 지어졌다면, 중국의 다롄 시는 일본의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실리콘밸리이다. 이들은 24시간 7일 쉼 없이 첨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 명의 인건비로 중국인 엔지니어 세 명을 고용하고도 초임 90달러로 시작하는 콜센터 직원 다수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²⁷⁾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이를 고용 창출로 본다. 또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싼 곳으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프리드먼이 간과한 것이 있다. 그는 인도나 중국의 노동자들이 24시간 7일 동안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 환경이나 미국과 일본의 노동자가 일할 기회를 잃는다는 부정적 측면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시간과 공간에 인간에게 허락한 안식의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소명의 생각을 인터넷에 연결된 화면 뒤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그의 기술 과학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기술과학에 종속된 인간의 자유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²⁸⁾ 인간의 기술 종속성을 말하며 기술과학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프레데릭 호농(Frédéric Rognon)에 따르

27)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이진식 역,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21세기북스, 2013), 43.

28) 자크 엘뤼는 기술과학에 대한 탁월한 혜안을 가진 사회학자이고 윤리학자이다. 그는 기술이 허락하는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하며 인간의 자유는 종속적이라 생각하였다. 그의 사회적 측면의 기술 분석은 이후 신학적 분석으로 이어진다. 신학적 측면에서 인간이 기술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면 기술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허구적 이데올로기이다.

“인간은 기술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는 기술적 정보와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변증법적이지 않으며 기쁨, 고통, 소망, 절망, 열정의 표현에 무감각하다. ... 정보 혁명 이후에 우리 각자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과도 나의 질문과도 나의 미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수천의 정보 속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자유를 줄 것처럼 보이는 이 허구적인 도구에 의해서 유인되고 매료당한다.”²⁹⁾

프리드먼과 다른 시각을 지닌 제러미 리프킨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리프킨은 『자본의 종말』에서 시장이 가상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전통적 자본주의 이념의 핵심개념인 소유개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실 소유개념은 근대시민사회와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신성한 개인의 권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리프킨에 의하면 후기 산업사회에서 모두가 평면 스크린에 접속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평면 스크린에 제공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필요하면 누구나 접속하여 정보를 가져간다. 여기서 리프킨은 소유개념보다 공유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제품의 판매와 구매, 애프터 서비스, 자재관리, 인사관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인터넷

29) Frederic Rognons, *Jacques Ellul- Une pensée en dialogue*, 임형곤역, 『자그 엘룰 대화의 사상』 (서울: 대장간, 2011), 49.

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영업소와 창고, 사무실, 직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소유보다는 정보 공유 쪽이 과학기술사회에 적합하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일자리가 없어져간다는 실업의 발생이다. 인터넷의 출현이 노동환경에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³⁰⁾

결론적으로 기술과학을 대하는 프리드먼, 호농, 리프킨 사이에 각각의 입장은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 노동은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기업들도 생존하기 위해 기술과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쟁의 압력을 받는다. 기술은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낳는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기술과학은 작꼬 엘펠, 한스 요나스, 호농과 같은 이들이 이해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간섭 없이 그리고 목적성 없이 자기 증식하며, 모든 영적가치나 도덕, 정치, 경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인간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자동 매커니즘에 의해 운행된다. 기술과학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루터의 노동신학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 조정하고 진화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무의미의 세계를 건설한다. 이것이 현대인의 슬픈 운명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기술과학과 지식 정보화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동거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 정신에 개신교의 윤리는 너무도 반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버에 의해 왜곡된 개신교의 금욕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일상의 일 속에 신의 사명이

30) 서이중,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20. 인터넷의 적용에 직접적인 분야가 은행업이다. 사회학자 서이중은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에서 각 은행의 여성 인력의 채용 감소가 온라인시스템 구축 이후(1982-1991년)라고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규여성인력을 대신하여 파트타임자를 채용하여 정규직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압박을 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존재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노동의 근원적 해석을 신학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노동윤리에 대한 소명 위기의 신학적 판단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난 이후(1998년 IMF) 노동의 유연성은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아니라 해고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이익과 직결하고 있다. 낮은 고용율과 고강도 구조조정은 고용 없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고 구직자의 구직 의지를 꺾기에 충분하여 ‘삶의 질적 저하’라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곧 각자의 능력을 다 쏟아 붓고도 소득과 자리보전이 어려워진 것이다.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를 정치체도가 보장하거나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적 가르침도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 풍토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³¹⁾

이러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노동과 정치의 분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한나 아렌트는 노동을 정치로부터 배제하고 수단적 차원으로 이해하였으며 사회적 담론과 소통의 주체로서의 노동의 양과

31) ‘일터에는 일의 신학(Theology of Work)이 필요하다, 당당뉴스, 2015년 9월 1일자(인터넷 판)

미국 바키대학교 부총장 그웬 듀이(Gwen Dewey) 박사는 일터가 영성이나 신학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교회론을 통하여서 설명하였다. 그는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에 반응하는 태도이자 행위이므로 일 또한 예배”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영적이고 거룩한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의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규정한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62>

질의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였다.³²⁾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양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과 이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미제스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행동하는 대신 노동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들의 수요를 낮추고 사는 곳과 직업을 계속 바꾸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바 있다.³³⁾ 그것은 그와 함께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노동 개념 안에 존재론적 삶 의미가 숙고의 대상이 아님을 말한다. 일하는 사람의 존재론적 의미가 없으면 윤리적 당위성도 사라진다. 플라니도 이를 두고 ‘제아무리 노동이 상품이라고 우겨댄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본성을 지니게 마련이다’라고 말한 것이다.³⁴⁾ 노동은 정치사회적 행동이다. 그래서 노동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노동은 그 인격적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노동은 생명과 정의와도 연관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이다. 루터는 소명으로서의 노동개념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한 직업제도의 신성성을 분명하게 확립시켰다.³⁵⁾

인간답게 살 권리의 두 번째 신학적 논의는 노동과 과학기술 속에 세속화와 이를 이용하는 세속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소명의 위기를 낳고 있다. 과학의 합리성은 인간 스스로 모든 자연적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성의 긍정성과 희망을 세계 안에 세워 놓았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기술은 그 자체로 기계적 메커니즘과 논리

32) 강원돈, 앞의 책, 149.

33) Karl Polany,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도서출판길, 2012), 462.

34) 위의 책, 463.

35) 이정배, “노동신학의 이론적 고찰”, 『신학과 세계』 통권 제21호, (1990년 가을), 136-137.

적 구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목적은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혜택 없이 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모두가 누리는 풍요와 편안함이 과학기술로부터 온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여기서 ‘소외’가 일어난다. 즉 과학기술의 세계가 낳은 세속화는 신화적 세계와 신학적 세계를 인간의 일상의 삶에서 소거하였다.³⁶⁾ 그 결과 노동에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같은 의미는 철저히 해체되었으며 ‘청지기’와 같은 책임 윤리는 시장원리로 대체되었다.

대표적 기술문명 비판자 작끄 엘릴은 ‘자본주의-기계화-기술화’로 노동과 소명 사이에 철저한 분리가 생겼다고 보는 이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순전히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만 고려하고(심지어 교회의 기능에서조차) 나머지 모든 것을 저버린다면 모든 것이 단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명 속에 직업을 흡수함으로써 둘을 통합한 뒤, 이제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된 소명을 축출함으로써 또 다시 둘을 통합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그리고 인간에게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하는) 노동과 더 이상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소명 사이에서 찢겨진 채 있는 모습이다.”³⁷⁾

한스 요나스(Hans Jonas) 역시 엘릴과 그 결을 같이 한다. 그는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도구가 합하여 무의미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끝으로 기술의 묵시론적 잠재력, 즉 인류 존속의 위협과 인류의 유전적

36)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13-116.

37) Jacques Ellul, 앞의 책, 525.

불가침성의 훼손, 그리고 그것의 임의 변경과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고차원적인 생존 조건의 파괴를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은 전통 윤리학이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물음, 즉 인류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을 던지게끔 한다.”³⁸⁾

‘기술이 철학과 신학의 주제이다’라는 요나스의 말을 외면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기술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게 된다. 사실 기술이 경제 영역에서 발전되어 이룩한 생산방식이 산업화이다. 이어서 사회 구성원이 산업화에 얽혀 있을 때 산업사회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소외라는 산업화의 부정적 결과가 생겨났다. ‘노동신학’ 관점에서 ‘소외’는 일하고 싶어도 기계와 기술로 대체된 일터에 사람이 들어설 곳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실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이 사라진 일터에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도 함께 사라진다. 루터가 말하듯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가면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에도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기고 계심’이다.³⁹⁾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이 세상에 섭리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도 그 자리를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산업화가 낳은 ‘소외’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노동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가치가 자체적으로 생겨난다고 믿는 개신교도에게 이러한 ‘소외’는 심각한 실존론적 문제이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설명할 것인가?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또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노동이 기술적 문제로 환원된 까닭에 이러한 실존론적 문제가 붙어지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일하

38) Hans Jonas, *Technik, Medizin und Ethik - Zur Praxis des Prinzips Verantwortung*, 이유태 역, 『기술 의학 윤리』(서울: 솔출판사, 2005), 47.

39) Martin Luther, 앞의 책, 468.

심과 인간의 행위 사이에 노동이 있으며 이들은 분리될 수 없다. 칼 폴라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노동이 분리되는 것의 문제를 경제학의 언어로 정확히 지적한다.

“노동을 인간의 다른 활동들로부터 떼어내어 시장 법칙에 종속시키면 인간들 사이의 모든 유기적 존재 형태는 소멸되고 그 자리에는 대신 전혀 다른 형태의 조직, 즉 원자적 개인주의의 사회 조직이 들어서게 된다.”⁴⁰⁾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화 사회의 문제, 즉 ‘소외’에 대하여 칼뱅이 개신교인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는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람의 일이 의미를 지니는 것도 비록 그 일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 해도 결국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인간의 행위가 변질되고 올바르게 못하게 되는데 있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자율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그들을 착취하였다. 칼뱅은 이를 죄악이라 규정한바 있다.

“예컨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어느 가난한 사람을 3일 뒤에 죽이고도 태연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윤만 취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지극히 따뜻하게 보살펴서 그들이 지나칠 만큼 혹사당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노동을 계속하고 그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⁴¹⁾

40) Karl Polany, 앞의 책, 439.

41) André Biéler, 앞의 책, 82.

칼뱅의 일의 신학은 간단하다. 그것은 노동이 이윤 획득만을 위한 착취가 아닌 모두를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과 일치 된다는 말이다. 현대의 기독교 노동윤리 역시 그의 윤리적 유산을 이어받아 노동을 개인적 차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더욱이 맑스의 분석과 같이 노동력을 사고 팔리는 노동 상품으로 이해하지도 않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공장 문 앞에 놓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거부한다. 개신교는 노동 안에 해방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노동의 사회적 원칙을 강조한다. 사회적 원칙이라 함은 첫째로 협동과 협력을 의미한다. 곧 협동은 시장이 제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때에도 노동의 본질적 징표였다.⁴²⁾ 둘째로 자기표현으로서 노동을 들 수 있다. 노동이 단지 적대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이다. 한 차원 높여 근대적 인간에게 노동은 주체로 설 수 있음이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맑스의 노동 이해를 통해 근대의 주체적 인간을 ‘남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체적 사람’으로 이해하였다.

“타자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의존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내가 타자에게 나의 생계를 의탁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나의 생명을 창조했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삶의 원천이며 나의 삶이 필연적으로 나의 외부에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이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것이다.”⁴³⁾

볼프는 맑스가 지적한 타인의 은총으로 사는 ‘소명이론’의 한계에 동

42) 강원돈, 앞의 책, 166.

43) Miroslav Volf, *Zukunft der Arbeit-Arbeit der Zukunft*, 이정배 역, 『노동의 미래-미래의 노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39.

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타인의 노동의 도움을 실제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⁴⁾ 여기서 각 사람은 주어진 은사를 따라 실천하면서 사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한다. 그것은 삶이며 인간이 되는 것으로써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자기표현이다. 셋째로 자연과의 화해로서의 노동은 사회적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노동의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보여주는 성서의 표현은 포도원 비유(마 20:1-16)이다. 이 예수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시간과 노동량을 계산하는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늦게 온 일꾼에게도 일찍 온 일꾼과 같은 분배를 한 주인은 부당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의 대가는 ‘살만하게’ 지불 되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비유 속에 드러난다.⁴⁵⁾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노동의 유연성’은 무수한 계약서를 만들어 냈다. 그 계약서의 핵심은 필요한 시간만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분히 기술적으로 작성된 서류이기에 그 안에 ‘사람이 살만 한가’는 들어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원 비유는 일과 나눔 그리고 타인의 삶과 생존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V. 나오는 말

21세기 한국사회는 쉽게 풀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청년을 고용할 의지가 없는 기업과 중년의 노동자를 감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한 직업 환경과 기술과학의 의미 없는 진화와 혁신 앞에서 모두가 안정된 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 각자도생이라는 지독한 경쟁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 노동의 조건이 된지 오래

44) 위의 책, 40.

45) André Biéler, 앞의 책, 86.

다. '지속가능한 일'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경쟁시스템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관련도 없다. 한국사회가 채택한 경제적 시스템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은 다양한 형태로 이 시스템에 얽혀있고 밀착되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제 노동과 관련된 사회 현상에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먼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하는가?'라는 의미를 찾는 질문이 노동의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시민과 기독교인에게 던져져야 할 것이고, 윤리적이며 존재론적인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⁴⁶⁾ 그의 말은 루터나 칼뱅의 개신교 '노동신학'과 그 결을 같이 한다. 본 논문이 지적하였던 부분도 개신교 노동윤리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후기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으로 경도되었거나 혹은 본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맑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마저도 기술과학의 진화 앞에서 그 도덕적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현대 인간이 자신의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주변 환경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개혁주의자들의 개혁을 끝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일을 통한 피조물의 돌보심'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중이다. 이 개혁적 사고가 다시 진지하게 검토 되는 곳에서 노동 개혁 역시 시작될 것이다.

46) Richard Sennet, 앞의 책, 212.

참고문헌

- 문시형. 『직업 소명과 책임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사회정의의 가톨릭의 입장』.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3.
- 손준영. 『직업윤리』. 서울: 대왕사, 1998.
- 서이중.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서울: IVP, 2012.
-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柄谷行人, トランスクリティケ-カントとマルクス,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과주: 한길사, 2005.
-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Francis Fukuyama.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한국경제신문국제부 역. 『대붕괴 신질서』.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1.
- Frédéric Rognons. *Jacques Ellul- Une pensée en dialogue*. 임형곤 역. 『자끄 엘룰 대화의 사상』. 서울: 대장간, 2011.
- Hans Jonas. *Technik, Medizin und Ethik - Zur Praxis des Prinzips Verantwortung*. 이유탉 역. 『기술 의학 윤리』. 서울: 솔출판사, 2005.
- Jacques Ellul. *Les Combats de La Liberté*. 박건택 역. 『자유와의 투쟁』. 서울: 솔로몬, 2008.
- Karl Polany.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도서출판 길, 2012.
-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Michael Novak. *Business as a Calling*. 김진현 역. 『소명으로서의 기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Day by Day We Magnify Thee*. 주인해 역. 『그리스도인의 자유/루터 생명의 말』. 서울: 동서문화사, 2010.
- Miroslav Volf. *Zukunft der Arbeit-Arbeit der Zukunft*. 이정배 역. 『노동의 미래-

- 미래의 노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Richard Sennet, *The Corrosion of Character*.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S. Ozment,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박은구 역.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서울: 혜안, 2004.
-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이견식 역.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21세기북스, 2013.
- Arthure Rich, *Ethique economique*. Geneve: Labor et fides, 1994.
- 강원돈, “서양 실천철학의 노동 개념에 대한 기독교 노동윤리의 평가”. 『신학연구』 제 47집, 2005. 147-172.
- 이정배, “노동신학의 이론적 고찰”. 『신학과 세계』 통권 제21호, 1990년 가을. 126-215.
- 당당뉴스, ‘일터에는 일의 신학(Theology of Work)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1일자 (인터넷 판)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62>
- https://de.wikipedia.org/wiki/Wenzeslaus_Linck
- [http://gameo.org/index.php?title=Linck,_Wenzeslaus_\(1483-1547\)](http://gameo.org/index.php?title=Linck,_Wenzeslaus_(1483-1547))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29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고용의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소명이나 부르심 개념을 고민하고 있다. ‘노동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명제가 해체된 오늘의 사회를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그 동안 한국교회가 버는 것에 집중하여 모두의 유익을 간과하였던 점을 루터의 소명이론을 다시 가져와 현실에 적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였던 노동신학을 재검토 할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안에서 기독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자본주의와 관련 없음을 밝혀 노동의 유연성에 거리두기 입장의 필요성을 노동신학의 앞에서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개신교 윤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유혹에 가담하였는지 베버와 마이클 노박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퇴색하고 고용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과학과 인터넷 상황을 점검한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과 일터 사이를 혁신적으로 연결하는 길은 옛 소명이론과 금욕주의를 재해석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기술과학에 근거한 현대판 노동이해에 대한 자크 엘월과 한스 요나스의 기술문명 비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빚어낸 공동체 해체라는 사회적 현상에 접근하면서 다시 옛 소명이론과 금욕주의의 본래적 뜻을 삶 속에 적용할 것에 대한 제안이다.

주제어: 노동신학, 노동의 유연성, 소명으로서의 기업, 기술비판, 수단으로서의 노동
